

손일봉 작 '풍경(초승달)'



허백련 작 '도화산수'

광주문예회관 서포터즈 1기 모집

오늘부터 접수...SNS서 공연·전시 등 홍보

광주문화예술회관이 기사,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공연·전시 등의 소식을 전해줄 인재를 찾는다.

올해 첫 선을 보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오늘부터 너랑 나랑 CC 하는거다'의 'CC'는 Culture(문화) + Creator(콘텐츠제작자) 합성어로 문예회관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온라인 서포터즈를 말한다. 서포터즈는 네이버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을 이용해 회관 내 공연·전시·축제 등을 홍보하게 된다.

모집분야는 텍스트·사진·영상제작 등 3가지로 총 20명을 선발하며 문화예술공연에 관심이 많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

작이 가능한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서 작성 후 접수하면 된다.

서류합격자 발표는 2월 12일, 면접은 2월 14일이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2월 21일이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오는 2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약 1년간 활동할 예정이며 소정의 원고료 지급, 공연 관람 기회제공, 우수 기자 특별부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 062-613-8232.
/오지현 수습기자

광주-대구 달빛동맹전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 대구미술관과 업무협약
2월·6월 양 지역에서 '달이 떴다고' 연합전

광주와 대구 두 도시 간 교류·협력을 위해 다채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달빛동맹'이 문화예술교류의 장으로 확대된다.

광주시립미술관 전승보 관장과 대구미술관 최은주 관장은 최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광주와 대구의 미술 교류를 통해 영·호남 화합과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광주·대구 '달빛동맹' 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시립미술관과 대구미술관의 연합 전시를 통해 영·호남을 대표하는 미술작가들을 소개하고 조명함으로써 양 도시의 시민들에게 다양한 작품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소장품 연합전시인 '광주·대구 달빛동맹전-달이 떴다고'

를 개최할 예정이다. '달빛동맹' 대구 전시는 2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광주 전시는 6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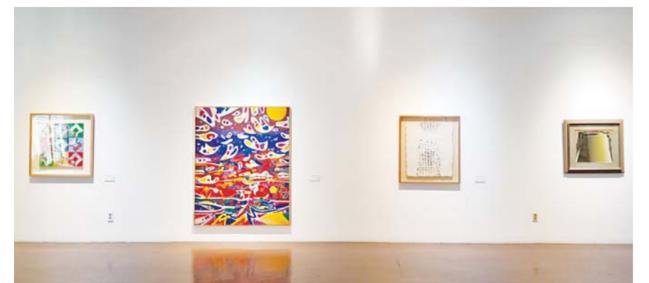
'광주·대구 달빛동맹전-달이 떴다고'는 두 미술관 소장 작품 중 풍경을 소재로 하는 작품을 각각 37점씩 선정해 모두 74점을 순회 전시한다. 출품작에는 광주와 대구의 근대 화단을 대표하는 작가의 작품은 물론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인 작가의 작품까지 다양한 세대와 장르의 작품이 소개된다.

김용택 시인의 시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에서 차용한 전시 제목 '달

이 떴다고'는 대구의 '달구벌'과 광주의 '빛고을'에서 연상되는 '달'과 '빛'의 상징 언어다. 미술관 전시가 두 도시의 인연을 잇는 가교로서 더욱 풍요로운 문화예술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광주시립미술관 전승보 관장은 "여향의 도시이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인 광주는 걸출한 대가들이 배출되어 오랫동안 한국 화단의 중심이 되어왔는데 이러한 특성들을 아우르는 소장품 교류전을 정례화함으로써 광주와 대구, 더 나아가 한국 미술이 더욱 풍성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연수 기자



아산조방원미술관이 올 첫 기획전으로 오는 3월 22일까지 소장품전을 선보인다.
/아산조방원미술관 제공

1990년대 미술계 변화와 작가들 고민은

아산조방원미술관 소장품전 '명명하는 별들'
3월 22일까지 개관 기증작가 19명 작품 전시

전남도립옥과미술관이 지난해 8월 아산조방원미술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전남도립미술관이 광양에 본격적으로 개관을 준비하며 도립옥과미술관이 전남도립미술관 분관의 자격을 갖게 되면서다.

아산조방원미술관은 올 첫 기획전으로 소장품전을 선보이고 있다. 오는 3월 22일까지 '명명하는 별들'을 주제로 김대양, 김재일, 박행보, 양영남, 오경규, 오승운, 우제길, 조규일, 최영훈, 최종섭, 하철경 등 19명 작가의 작품을 전시한다.

1990년대 아산 조방원 선생과 함께 지역 미술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며 교류했던 여러 작가들이 도립미술관 건립에 대한 기쁜 마음으로 기증했던 작품들이다.

1990년대는 국제·국내적으로 변화가 컸던 시기로 미술계 역시 변화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며 이전 민족주의 중심의 거대담론에서 타자 속 '나'를 찾는 미시적 담론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때다.

이런 변화들은 1990년대 다양한 크고 작은 미술단체들의 시도들 속에서 잘 드러난다.

당시는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고 그 정체성을 무엇으로 어떻게 확보하며 어떻게 조형적으로 완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시기였다.

이번 '명명하는 별들'전에서 소개하는 작품들은 그 시기를 살면서 작가로서 시대정신을 작품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고민했던 우리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연수 기자

ACC, 공작인전 연계 한정판 아트상품 출시

강서경 작가와 협업...작품소장·실용성 '좋아요'



강서경 가방 패키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공작인-현대 조각과 공예 사이' 전시와 연계한 한정판 아트상품 '공작인 키트'를 출시했다.

ACC가 '공작인(工作人, Homo Faber)' 전 참여 작가인 강서경과 함께 기획한 '공작인 키트'는 가방, 노트, 연필의 한 묶음으로 구성됐다. 활용과 디

자인 뿐만 아니라 오늘날 개인이 사회와 맺는 관계에 대한 의미까지 담아 특별함을 더했다.

세계미술계가 주목하는 강 작가와 협업을 통해 선보인 이번 아트상품은 전시 주제와 연계해 '그린다' 혹은 '적는다'는 행위를 하면서 '공작인'으로서 우리의 본능을 일깨워 볼 수 있도록 기

획했다.

'공작인 키트'에는 ACC 복합3·4관에서 전시 중인 강 작가의 작품 '자리 검은 자리(Mat Black Mat)'가 담겼다. '화문석' 위 제한된 공간에서만 행해지는 공중무용 '춘앵무'를 위한 '자리'로 주어진 공간 안에서 개인의 역할의 지속적인 가능성을 표현한 작품이다.

ACC는 '공작인' 전시가 끝나는 오는 2월 23일까지 300개를 한정해 판매한다.

/이연수 기자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치(연속) 세탁기



다림시설



운반카트 고온시스템 살균



 [주]백양실업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T. (061)392-7900